LA한국문화원, 지역 작가 공모전 'Contemplating Boundaries' 작품 공모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지역사회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LAUNCH LA(회장 James Pano-zzo)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2일(수)까지 남가주 지역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Contemplating Boundaries" 라는 주제로 진행 되는 이번 공모전은 재미 한인예술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커뮤니티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심사위원으로 김태연 교수(TeaYoun Kim-Kassor/오티스 미술대학 학과장, 독립 큐레이터)와 미카 조 교수(Mika Cho/CSU LA 미대 교수, CSU LA Fine Art Gallery 관장)가 참여한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LA한국문화원과 LAUNCH LA가 함께 남가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과 타 커뮤니티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많은 한인 미술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미술 작가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시각예술 작품을 개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7월 12일(수)이다.

선정된 미술작품은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그룹전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LAUNCH LA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예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복합적인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음악, 전시, 워크숍,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작가들을 선정하여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 문의: (323) 936-3014

OC한인체육회, 미주체전 종합 5위

지난 23일(금)~25일(일)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가 되는 미주체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뉴욕에서 열린 제22회 미주한인체육대회(이하 미주체전)에 참가한 오렌지카운티(OC)한인체육회팀(단장 정철승)이 종합성적 5위를 거두었다(관련 기사 본보 1476호 'OC한인체육회, 미주한인체육대회 출전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이번 미주체전에는 34개팀,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OC한인체육회는 배드민턴, 야구, 보울링, 탁구, 아이스하키, 태권도, 농구 등 7개 종목에 12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배드민턴(금 12, 은 3), 야구(금 1), 볼링(은1), 탁구(금 1, 은 2, 동 3개), 아이스하키(동 1), 태권도(은 1)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농구는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최재석 OC한인체육회장은 "미주 체전이 동부지역에서 개최된 까닭에 OC에서는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다진 팀웍과 화합 그리고, 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분들 덕분이다. 선수단과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번 미주체전 1위는 주최 도시인 뉴욕이 차지했다.

이어 2위 뉴저지, 3위 달라스, 4위 워싱턴 DC, 6위 시카고, 7위 LA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미주한인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한 긍정적 사고의 발달, 한인사회 소통과 화합, 참여의식 확대로 인한 한인커뮤니티 결속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제23회 미주한인체육대회는 오는 2025년 LA에서 열린다.

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급등

▲ LAX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입국자들. 사진=shutterstock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B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은 2022 회계연도에 17.38%를 기록했다. 2021년 거부율은 18%였다.

최근 2년 수치는 팬더믹 직전인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5% 이상이면 미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물론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급등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겠지만 비자면제국 지정 직전의 3%대와 비교하면 거부율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의 비자면제국 적용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미국을 방문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방문비자 거부율과 함께 불법체류자 비율, 정치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위를 결정한다. 미국은 올해 한국을 비롯한 40개국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우르과이는 각각 2002년과 2003년, 그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뻐근한 통증/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Scoliosis) 특수교정(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손목/Carpal Tunnel Syndrome/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발목통증/쥐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 539. 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